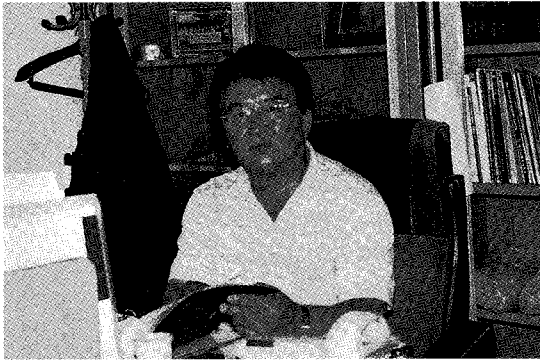


# 국내 생산라인에 적합한 자동라벨부착기 생산 주력

전 직원 엔지니어, 완벽한 품질 · 철저한 A/S 생명



▲ 임규재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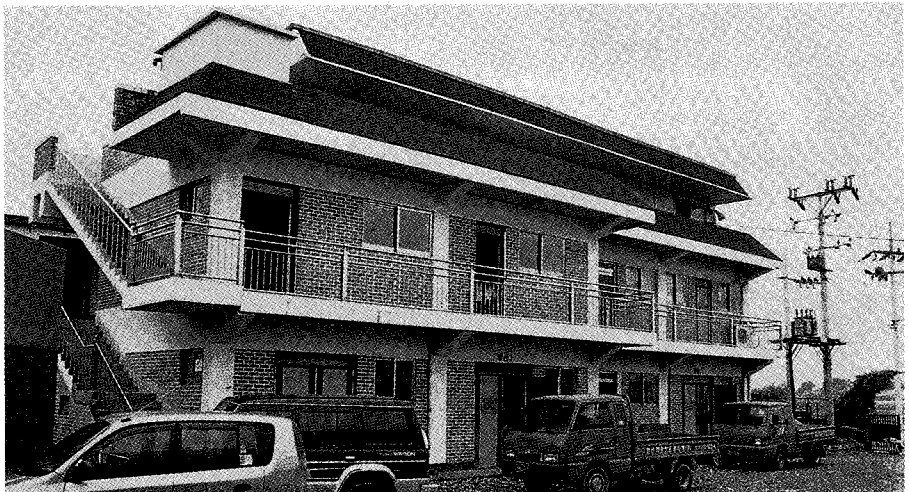
국내 자동라벨부착기의 일인자라는 점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이유가 없을만큼의 위치를 구축

한 한신라벨부착기(주)의 시작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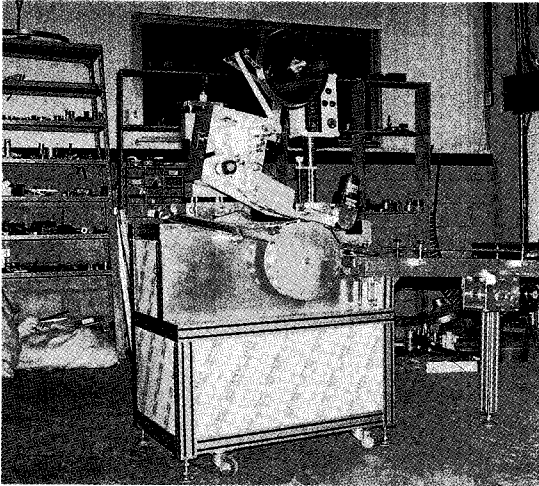
80년대 중반, 일본의 자동라벨기 전문회사인 (株)豊明産業이 한국에 기계를 발주하기 위해 국내에서 꽤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금사정상의 어려움과 짧은 제작기간 때문이었는지 잦은 그 업체에서 발주한 기계가 크레임을 일으켰다.

평소 (株)豊明産業의 대표이사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던 임규재 사장은 “한국의 기계산업이 낙후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매우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한 기업이 저지른 실수가 마치 한국의 모든 기



▶ 한신라벨부착기(주) 김포공장 전경



▲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한 라벨부착기

기업체의 모습인양 대변되는 형상에 스스로 이러한 불명예를 씻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임 사장은 두 달의 기간을 약속으로 생전 처음 자동 라벨부착기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생각보다는 우선 일본이 우리 한국기계 업계 전체를 우습게 본다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두 달이라는 기간동안 다섯대의 자동라벨부착기를 생산하게 됐고, 이것을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라는 임 사장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만든만큼 일본의 (株)豊明産業에서 인정을 받으므로써 자동라벨부착기를 만든 첫번째 목표인 자존심 회복을 이룸과 동시에 세계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는 라벨기 생산회사 설립이라는 자신의 평생 목표를 정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다.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는 계기로 자동라벨부착기를 제작하게 된 임규재 사장은 (株)豊明産業과 기술제휴를 통해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에

임신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생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한다. 그로부터 2년 후인 88년 한신엔지니어링으로 상호를 교체하고 국내 시판을 개시하며 그 명성을 쌓기 시작해 89년까지 총 750여대의 자동라벨부착기를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창업 초반의 기억을 떠올리는 임 사장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서투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국내 기계를 수출하여 일본시장에 우리 기계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는 자부심을 쌓아갈 무렵, 제가 만든 기계들이 일본 라벨기 회사의 이름을 달고 역수입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그 당시의 씩씩함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듯 했다. 이를 계기로 수출시장을 대폭 축소하고 내수로 눈을 돌린 한신엔지니어링은 90년 일본 자동라벨링 전문회사인 (株)尹村産業과 기술제휴를 하면서 이 분야의 깊이있는 기술을 도입하게 되고 91년에는 부산영업소를 개설해 본격적인 국내 영업을 시작한다.

1994년에는 전기식 열풍발생기 전문업체인 일본의 (株)竹綱製作所(TSK)의 한국 총대리점으로써의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현재의 상호인 한신라벨부착기(주)로 법인을 설립, 김포 현 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97년에는 자체 페인트 분체도장 공장을 설립해 업계에서 보기드문 성장의 일로를 걸어오기도 했다.

현재 한신라벨부착기(주)는 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포함, 13명의 전직원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탁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A/S·영업을 겸하고 있는데 고객이 원한다면 한신라벨부착기(주)가 생산한 제품 뿐 아니라 국내 생산 및 수입 자동라벨부착기의 전품종을 무상으로 A/S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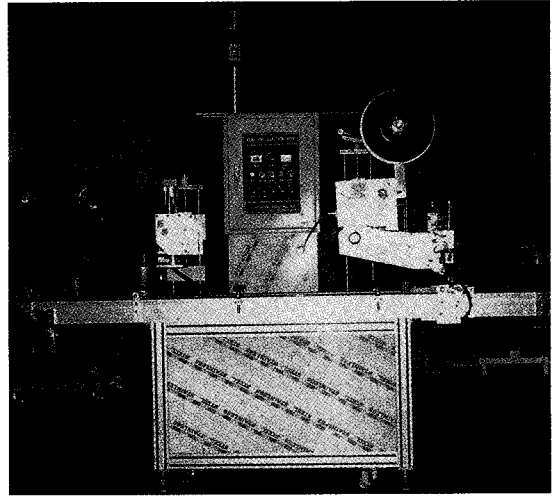


는 한신라벨부착기(주)만의 이런 철저한 고객관  
리력이 또 하나의 강점이다.

한신라벨부착기(주)는 선진 기술력을 도입하  
기 위해 외국의 엔지니어들을 국내로 불러들이  
는 것이 아니라 임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  
접 그 나라에서 기술을 배워와 직원들과 함께 기  
계를 제작하면서 선진기술을 습득함은 물론, 의  
견을 교환해 가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기민  
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에 나가보면,  
성능면에서는 국내의 기계가 절대 뒤지지 않습  
니다. 오히려 월등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인  
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재질과 디자인면입니다”라  
는 임 사장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되는 기계  
의 경우 성능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나 기계  
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디자인의 미려함을 앞세  
워 국내 기계보다 6.5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비해 국내산 기계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경쟁력에서 뒤져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반복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내 기계유저들에게서도 이러한 아쉬움의 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하는 임 사장은 “한 기  
계를 수입할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이 성능면  
에서 큰 차이가 없을 때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 회  
사의 명성을 우선시하며 6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외국산을 구입합니다. 이에 반해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계들을 접하면서 귀를 솔깃하다가도 가  
격을 맞출 때면 외국산에 비해 형편없는 가격에  
도 고개를 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라고 지적하  
고 단지 국산이기 때문에 성능을 의심하고 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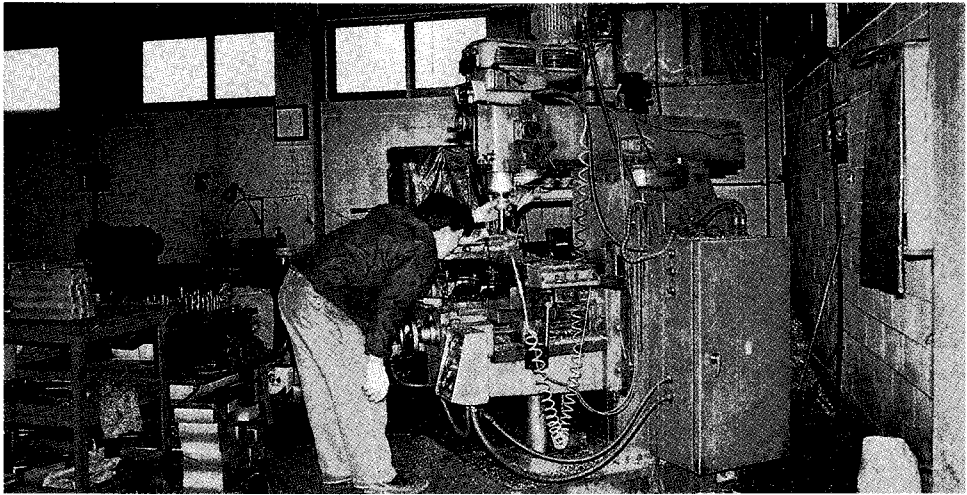


▲ 다양한 라벨을 고속으로 부착할 수 있는 라벨기

를 고집하는 선입견 보다는 기술력을 옹골게 평  
가하고 그에 응당한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업  
계의 질서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산기계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기계메이커로써 가질 수밖에 없는 정  
당한 평가에 대한 아쉬움을 스스로 해결할 방편  
으로 서구 수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신라벨부  
착기(주)는 우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  
장을 발판으로 삼기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동시  
에 국내 유저가 한신라벨부착기(주)의 기계를 의  
뢰할 경우 계약금없이 제작한 후 기계결합이 없  
다고 판단될 경우 구입하도록 하므로써 유저들  
에게 한신라벨부착기(주)가 생산하는 기계에 대  
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서구시장 개척을 위해 새로운 기계를 속  
속 발주하고 있는 한신라벨부착기(주)는 최근 새  
로운 라벨기를 개발했는데 기존 라벨기의 경우  
미리 지정된 인쇄만이 가능했던데 비해 이 기계



▶ 한신라벨부착기는 모든 공정에서 정밀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 경우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해 인쇄의 색상과 서체, 수량을 즉석에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기계가 최소 2만 장 이상의 생산을 기본으로 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한신라벨부착기(주)가 생산한 라벨기의 경우에는 그 양에 관계없이 원하는 수량만큼 생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벨기를 생산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기계 자체의 기술력 보다는 라벨을 부착하게 될 사출품의 일관성없는 외관에서 문제점을 찾는 임 사장은 “같은 용기더라도 사출시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어 라벨을 부착할 경우 크레임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용기의 외관이 다양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그때 제품의 사양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사양임에도 외관이 조금씩 달라 크레임이 날 경우 기계적 결함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라는

임 사장은 용기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기계에서 한 번도 크레임이 걸린 경우가 없었다고 자신했다.

“개발하고 싶은 아이템은 많으나 국내 기계의 단기는 무조건 저렴하게 매기고 보는 풍토 때문에 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넘기 힘든 벽에 부딪히게 되는 답답함 때문에 시작조차 쉽지 않습니다”라는 임 사장은 국내 기계메이커들은 성실한 자세로 정밀한 기계를 제작하고, 유저들의 경우 국산 기계의 우수성을 울곧게 평가하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산 기계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국내 기계시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덧붙이기도 했다.

라벨기 생산에 있어서만큼은 명실상부한 국내 일인자로 자리잡고 싶다는 이미 완성되어 가고 있는 소망을 다져가고 있는 한신라벨부착기(주)가 국내 기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으로써의 역할에도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

윤지은 기자